



## 오 록 도 행 복 칼 럼

배홍재  
택시기사·전직 케이불방송 프로듀서

2015년 3월, 스무 해 넘게 다닌 직장을 관 두아 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퇴의 압박을 참다 참다 더는 버티지 못했다. 회사를 나와 몇 가지 일에 손을 댔다. 주식투자부터 개인 회사의 총무 업무, 보험영업까지…. 근래에는 구명동 가구공장에서 일당벌이를 하며 밤에는 대리운전을 10개월간 병행했지만 벌이는 신통찮았고 땀은 갈수록 나빠지는 것



## 빌려준 돈 안 갚으면 ‘지급명령신청’

### 백보름 변호사의 생활법률

Q. 친구에게 그동안 모은 돈 2,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기로 한 날이 한참 지났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변제가 지났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증거가 확실하며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인정하고 지급명령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보다 간단한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여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위 절차에서 금전을 대여한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차용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통장거래 내역, 대여금과 관련된 문자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

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 재산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차용증 등을 증거로 하여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 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친구의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남구청 법률상담터

### ■소중한 재산 지키기 팁

- ① 금전거래 시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대여일자, 대여금액, 이자약정, 변제기일 등을 기재하고 채무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습니다.
- ②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보관합니다.
- ③ 대여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도록 합니다.
- ④ 대여금과 관련된 연락은 문자로 하고, 문자를 보관하도록 합니다.

\* 법률상담터는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주치의 제도이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소식

###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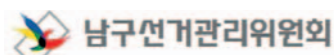
- ✓ 선거일(2020. 4. 15.) 현재 만18세 이상(2002. 4. 16. 이전 출생자)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0. 3. 24.)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 ✓ 거소·선상투표신고 : 2020. 3. 24.(화)~3. 28.(토)
- ✓ 선거운동 기간 : 2020. 4. 2.(목)~4. 14.(화)
- ✓ 사전투표 기간 : 2020. 4. 10.(금)~4. 11.(토)
- [매일 오전6시~오후6시]
- ✓ 선거일 : 2020. 4. 15.(수)[오전6시~오후6시]

### ☘위반행위 신고·제보

- ✓ 선거에 관하여 금전·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 ✓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0



# 어느 초보 택시기사의 고단한 하루

같았다. 일을 접고 잠시 쉬고 있는데 “택시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친척의 전화를 받았다. 제법 큰 기업체에서 중간 간부를 오랫동안 해온 나로서는 불쾌하기도 해 단번에 거절을 했지만 “나중에 개인택시 몰면 밥은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나를 부추겼다.

법인 택시 무사고 3년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 면허를 살 수 있다는 가족의 성화에 못이겨 택시 회사의 문을 두드렸다. 아무리 취업난이라고 해도 택시업계는 늘 구인난을 겪고 있어 취직은 어렵지 않게 됐다. 택시 750여대에 자체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큰 회사에서 한시간 면접과 기본교육을 끝내고 바로 LF소나타를 수령했다.

법인택시의 운행 방식에는 택시 한 대를 기사 두 명이 나눠 배정받는 ‘2인1차제(2교대)’와 기사 한

명이 택시 한 대를 자기 소유의 차량처럼 모는 ‘1인1차제’가 있는데 처음 택시를 모는 나로서는 2교대는 사납금 맞추기도 쉽지 않고 교대시간에 촉박하게 달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1인1차제(하루 사납금 14만5000원)를 선택했다.

난생 처음 잡아보는 택시 운전대에 적잖게 당황했다. 택시기사는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부산지역 지리도 잘 알아야 하고 승객의 심정도 잘 파악해 그때 그때 적절한 대화도 건네야 하는 등 최대한 불편함 없게 응대해야 했다.

나는 점심·휴식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2~13시간 운전대를 잡는다. 오전과 저녁 출퇴근 시간대 그리고 자정 전까지 ‘술 손님’이 모여 있는 변화가 쪽에서 집중 영업을 한다. 처음 나홀로 유류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납금으로 하루 4만원을 정산하면 나머지 수입은 모두 가져갈 수 있었다. 기본요금

3,300원에서 5,000원 거리의 승객이 대부분 이어서 사납금을 맞추기란 결코 쉽지 않다. 장거리 손님을 태우는 운수 좋은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다. 언젠가 부산 역에서 한 시간을 기다린 끝에 태운 승객이 기본요금 거리만 가는 통에 맥이 풀렸던 기억이 있다. 현재 나는 부산의 황금상권인 해운대를 중심으로 영업을 쾜다. 다른 곳에 거주하는 택시기사들도 해운대를 중심으로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하루 평균 17만원~2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신알’이 이 정도면 잘 하는 거라고 선배 기사들이 말했다. 법인택시는 법적으로 5일 근무 후 하루를 쉬어야 해 5일차는 거의 새벽까지 영업을 쾜는데 이때 23만원까지 매출을 올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납금을 내고 나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라고는…. 한 달 간 택시를 몰아보니 수입이 하루 20만 원을 찍으려면 평균 12~15시

간 운전을 해야 가능한데 처음 2주는 사납금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법인 택시기사의 급여체계를 보면 개인의 노력에 따라 수입을 가져가는데 기본급 130만원에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본인 수입이다. 4대 보험과 노조비 등을 빼면 한 달 23일 만근에 평균 하루 20만원의 매출을 올리면 기본급을 포함해 월 250만원 정도 벌 수 있다. 한 달 400만원을 벌어간 택시기사도 드물지만 있는 것으로 안다.

한 달 정도 택시 영업을 해보니 채 한 평이 안 되는 좁은 차 안에 더러 집처럼 아늑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출구 없는 중년에게 삶의 막장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다.

대단히 고독하고 대단히 힘든 직종임은 한 달 체험만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다. 머지않아 정부의 개인택시 양도·양수 규제가 크게 완화돼 경력이 많지 않은 나도 법인택시보다 수입이 나는 개인택시를 몰 기회가 생길지 모른다. 열심히 하면 나이 들어 월 300만원 정도는 벌어갈 수 있다고 하니 당분간 택시 운전대를 부지런히 잡아볼 참이다.

## 반갑다 제비야!

한 마리 제비가 날아왔다. 해마다 삼월 삼치 날 쫓아왔었는데 작년에 오질 않아 공급했다. 이제 더 포근하고 아늑한 곳으로 옮겼나 보다 했더니 잊지 않고 찾아왔다. 제비집도 두 채가 그대로 있다. 반갑다 제비야! 다시 찾아와줘서 다시는 뭐라고 하지 않을게. 오물 썩다고 청소 하는 게 귀찮아 가끔씩 제비 보고 싶은 내색을 했던 내 마음을 들켰나보다.

그래서 작년에 오지 않았던 게로구나. 새끼들은 어찌고 혼자 왔을까. 아니지, 지난해 그 새끼가 자라서 찾아온 걸까. 엄마, 아빠는 저 먼 곳으로 떠나고 아무튼 올 때는 많이많이 식구를 늘려 가려무나.

온 힘을 다해 밖으로의 비행을 꿈꾸면서 가만 가만 움직이는 몸짓을 따라 가까이 다가가 이야기 해 본다. 제비는 빠빠히 내려다보면서 눈인사를 하고는 깃털이 곡선을 그리며 집 주변을 즐겁게 난다. 전깃줄에 걸터 앉아 보기도 하고 빨랫줄에 앉아 소리도 지르고 오랜만에 고향오니 신바람 났나보다. 제비

를 보는 내 마음도 여유롭고 행복해 진다.

작은 실바람에 두동실 몸 띄우고선 어디론가 훌쩍히 떠나 버릴까봐 하늘도 따뜻한 햇살에 품을 잡아본다. 보석을 심어 놓은 듯이, 박씨를 물었다 준 제비의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보살펴야 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왜 허투루 살 수 없는지, 그 보살핌을 몸으로 실천하는 순간 존재 자체도 어떻게 위대해지는지를 깨달으면서 이 봄과 여름이 지나면 떠나가겠지만 있는 동안만큼 편하게 해주리라, 엄마의 방처럼.

린 마굴리스와 도리언 세이건 모자는 함께 저술한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인간은 생명이라는 거대한 협주곡에 속한 작은 주제의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인간이라는 종이 존속하기 위해 서로라도 다른 생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다시 만난 제비의 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제비를 바라보다 햇살의 보석을 깨닫다.

진정남 명예기자

## 2020년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 참여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교육 시작 1달 전부터 접수(선착순 모집 마감)
- 교육장소 : 보건소 3층 보건교육장
- 교육대상자 및 내용

교육명	교육 기간	대상자	비고
임산부 건강교실	1기 3.13.~3.27.(매주 금요일)13:30~15:30	임신 16주 이상 관내 임산부	
	2기 6.1.~6.15.(매주 월요일)13:30~15:30		
	3기 10.16.~10.30.(매주 금요일)13:30~15:30		
임산부 태교교실	1기 4.23. 14:00~15:00	임신 16주 이상 관내 임산부	
	2기 7.2. 14:00~15:00		
	3기 10.7. 14:00~15:00		
모유수유클리닉	1기 3.6. 14:00~16:00	임신 16주 이상 관내 임산부	
	2기 5.14. 14:00~16:00		
	3기 7.16. 14:00~16:00		
	4기 9.17. 14:00~16:00		
	5기 11.19. 14:00~16:00		
베이비마사지교실	1기 3.20.~3.27.(매주 금요일)14:40~15:40	생후 6개월 미만 영아 및 보호자	
	2기 10.23.~10.30.(매주 금요일)14:40~15:40		
아빠와 함께하는 베이비마사지교실	1기 4.11.~4.18.(매주 토요일)11:00~12:00	생후 6개월 미만 영아 및 보호자	※아빠 참여 필수
	2기 9.19.~9.26.(매주 토요일)11:00~12:00		

※단, 상기일정은 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유선 신청,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07-6428~9, 6499

## 남구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신청 안내

- ◆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건강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

- 신청기간 : 2020. 3. 9.(월)~4. 24.(금), 선착순 150명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남구 주민(직장 주소 포함)
- 신청조건 : 비질환자 중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자(단, 질환자 및 약물 복용자 제외)

건강위험요인		판정기준	〈서비스 신청 필수사항〉-스마트폰 소지자
① 혈압	수축기 혈압	130mmHg 이상	
	이완기 혈압	85mmHg 이상	
② 공복 혈당		100mg/dL 이상	
③ 허리둘레	남	90cm 이상	
	여	85cm 이상	
④ 중성지방		150mg/dL 이상	▶Play스토어 / App스토어에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 설치가 되면 사용가능한 폰
⑤ HDL-콜레스테롤	남	40mg/dL 미만	
	여	50mg/dL 미만	

※ 혈압의 경우, 수축기 또는 이완기 수치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포함

※ 최초 건강검진 및 의사상담 후, 건강군이나 질환자로 판정 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김화진의  
부산사람 된  
서울내기



## 이방인 눈에 낯선 조방 없는 조방알

당황한 듯 혼잣말을 하는 중개사를 보며,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말았다.

그런데 ‘조방’이라는 말은 그 뒤로도 여러 번 들렸다. 친척 아끼 돌반지를 살 때에는 조방 앞 귀금속 거리를 소개받았고, 낙곱새(낙지·곱창·새우) 맛집을 찾아간 골목에는 ‘조방낙지’라는 간판을 건 집이 그득했다. 낙지골목에서 사람들이 “나, 조방 앞에 사는 사람이야”하며 나누는 이야기까지 듣고 보니, 도대체 ‘조방’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조방’이란 일제가 1917년에 세운 ‘조선방직주식회사’의 줄임말이고, ‘조선방직 앞’이라고 부르던 것이 ‘조방앞’이 되었다고 한다. 조선방직주식회사는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수탈과

노동착취의 상징 같은 공장이었다니, 아픈 역사가 ‘조방알’이라는 지명으로 저항감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이했다. 조방이 있던 곳이니 언젠가 이곳에는 ‘조방타’로 불리게 될지도 모르지만, ‘조방알’이라는 이름에는 억설적인 정겨움이 있는 것 같다.

참,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부산사에서 버스 하차 태그하고 응모하면 교통카드를 주는 경품 이벤트를 6월까지 한다는 것이다. 부산 버스의 거리비례요금제가 아니라 하차태그를 하지 않아도 된다니, 그동안 서울 습관대로 하차태그하는 나를 의아하게 보는 시선이 있었던 것도 같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린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근무



## 우리지역 일자리 알리판

(2. 25.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예쁜동지어린이집	용호동	보육교사	1명	2. 25.~채용시	월급 1,796,000원	010-6760-5943
주식회사 큐하스	우암동	식품 생산원	10명	2. 25.~채용시	월급 2,246,285원	051-860-2134
에이치비코퍼레이션(주)	용당동	영업지원 사무원	1명	2. 25.~채용시	연봉 24,000,000원	070-4372-7928
윌라스요양병원	대연동	병원금식 조리사	1명	2. 25.~채용시	월급 1,900,000원 ~2,000,000원	051-638-7575
오록도 신경과	용호동	간호조무사	2명	2. 25.~채용시	연봉 27,000,000원	051-611-2621
스피드메이트 이마트문현	문현동	자동차 정비원	1명	2. 25.~채용시	월급 2,320,000원	010-3879-7476
효메디요양병원	용호동	간호사	2명	2. 25.~채용시	월급 2,500,000원	051-624-6600
(주)운현건설	대연동	경리사무원 (건설)	1명	2. 25.~채용시	월급 1,800,000원	051-611-7863
인창대연요양병원	대연동	단체금식 보조원	1명	2. 25.~채용시	월급 2,220,000원	051-774-1095
동천어린이집	역만동	보육교사 (안전보육)	1명	2. 25.~채용시	월급 1,002,000원	051-634-0720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78, 4078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